

경기 반월중학교 국어 교사 최지혜

환상을 통해 본 현실

『클로버』
나혜림 장편소설



책 소개

중학교 2학년 정인은 354,260원짜리 제주도 수학여행 가정통신문을 보고 자신의 시급을 계산해 본다. 월, 수, 금 주 3회 세 시간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로 최저 시급 9,160원을 받으며 한 달 꼬박 일해도 2박 3일 수학여행비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인은 학교 지원을 받으라는 담임선생님의 제안도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거절하고 자신의 아지트인 쓰레기장에서 폐지 수거함의 상자들을 보며 생각한다. ‘가져다 팔면 돈 좀 되겠는데.’

정인은 할머니와 둘이 살면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따라다녔다. 시간이 빌 때면 습관처럼 폐지를 주웠고, 그러다 보니 수학을 배운 곳도 킬로그램당 150원을 쳐 주는 고물상이었다. 그런 정인 앞에 등장한 고양이 한 마리. 우아한 자세로 정인을 이해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다. 정인은 혼잣말로 고양이에게 아지트를 공유하자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 후로 고양이는 정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햄버거 힐’에도, 고물상에도. 정인이 결국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 와 햄버거 힐에서 가져온 패티를 구워 주는 사이, 고양이는 까만 옷을 입은 남자로 변신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휴가 중인 악마, 헬렐 벤 사하르라고 소개한다. 앞으로 일주일 간 정인의 집에서 휴가를 보낼 거라면서.

헬렐은 정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으니 ‘만약에’라는 상상을 해 보라고 부추긴다. 헬렐은 욕망을 이끌어 내 쉽게 충족시켜 보려는 시도를 계속하지만 정인은 현실을 지각하기 위해 애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정인을 따라다니는 ‘만약에…’라는 말. 악마의 전능한 힘으로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제안 앞에서 정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정인은 응달에서도 자라고 있는 아지트의 클로버처럼 곳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

『클로버』는 학생들이 공감할 만한 현실을 다루면서도 환상이라는 장치를 유머러스하게 활용한 소설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철저한 리얼리티 서사에 비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학생들은 게임이나 웹툰 등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진 세계를 익숙하게 봐 왔기 때문이다. 환상을 경유하는 이야기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의 진실에 닿는다. 이 작품 또한 정인과 악마 헬렐의 만남을 통해 현실을 다시 비추고, 독자는 인물의 선택을 통해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다.



수업의 초점

1. 인물의 특징과 선택에 집중하며 읽기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심인물인 정인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 일지를 쓰면서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은 후에 다시 한 번 읽으면서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학생들은 먼저 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고, 헬렌, 할머니, 재아, 태주, 박 코치, 햄버거 힐 시장과의 관계 및 주요 정보를 추려 인물 관계표를 완성해 본다. 이는 총 2차시로 진행하여 첫 번째 시간에는 개인 활동으로 활동지에 작성하고, 모둠 활동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혼자 작성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점이나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물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어지는 차시에는 소설 속 인물의 선택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모둠원들과 공유한다. 소설에서 인물의 결정적 선택은 그의 특성과 변화가 반영된 것이므로 작품 이해의 핵심적인 열쇠이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선택의 문제가 특히 주요하게 다루어지므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2. 문학을 통한 마음 나누기

현실의 고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은 소설 속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 겹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들을 통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한 메시지가 두드러지며 독자가 파악하기도 쉽다. 이와 같은 소설의 특징을 활용해 지친 학생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작품을 읽기 전 아이들에게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을 엽서에 쓰도록 한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듯 맥락을 포함하되 간결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교사는 이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차시에 무작위로 배분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받은 엽서를 공감하며 읽고 소설을 활용하여 답장을 쓴다. 고민 사연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다음 소설 속 문장 하나를 선택해 옮겨 쓰도록 한다. 때로는 한 줄의 문장이 큰 위로를 전하기도 한다. 교사는 이를 다시 취합하여 처음 고민 사연을 쓴 학생에게 돌려준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작품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다.

3. 차시별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비고
1	읽기 전 활동	제목과 표지 그림을 통한 내용 상상하기 고민 엽서 만들기	
2~6	읽기 중 활동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7	읽기 후 활동	중심인물 정보 찾기	
8		인물 관계표 그리기	
9		인물의 선택 탐구하기	
10	평가	구술 평가	
11	추가 활동	소설 속 문장으로 답장 쓰기	

☰ 차시별 수업 계획

●●● 읽기 전 활동

| 1차시 | 상상하기, 엽서 만들기

① 제목과 표지 그림을 통한 내용 상상하기

1.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 본격적으로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이다.

2. 표지를 보고 소설의 내용을 추론해 보자.

- 고양이,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클로버의 구도에 주목하여 추론하도록 안내한다.

② 고민 엽서 만들기

1.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로 인해 어떤 감정이 드는지 엽서에 기록해 보자.

- 소설이 인물의 현실적 고민에서 시작된다는 점과 관련한 활동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한다.
- 작성자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보낸 사람 간에는 닉네임을 쓰도록 한다.
-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감정 단어를 제시할 수도 있다.

보낸 사람 []

• 요즘 나의 고민은:

(예시)

보낸 사람 [마카롱]

• 요즘 나의 고민은:
 저는 요즘 숨 쉴 틈이 없어요. 수행평가도 세 가지나 밀려 있고 다음 주에는 영어 말하기 대회 출전이 있어 대본을 짜고 연습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 잘 해내고 싶은데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 오히려 더 무력해지는 것 같아요. 하교 후 가는 학원 때문에 쉬는 시간이 별로 없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면 한밤 중이 되고 말아요. 그러면 배터리가 다 된 기계처럼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속 누워서 쉬고만 싶어요. 지쳐서 쉬기만 하는 제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니 더욱 괴롭고 답답한 날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읽기 중 활동

| 2차시~6차시 |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활동 1 독서 일지 쓰며 책 읽기

- 해당 차시에 읽은 내용, 읽으며 한 생각을 정리하는 활동이다.
- 수업 종료 10분 전임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읽은 부분까지 라벨 등을 활용하여 표시하도록 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일시	년 월 일 교시	면수	~
작품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읽으며 한 생각 혹은 느낀 점			

일시	년 월 일 교시	면수	~
작품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읽으며 한 생각 혹은 느낀 점			

일시	년 월 일 교시	면수	~
작품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읽으며 한 생각 혹은 느낀 점			

일시	년 월 일 교시	면수	~
작품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읽으며 한 생각 혹은 느낀 점			

일시	년 월 일 교시	면수	~
작품의 줄거리			
인상적인 부분과 그 이유			
읽으며 한 생각 혹은 느낀 점			

●●● 읽기 후 활동

| 7차시~9차시 | 파악하기, 탐구하기

활동 1 중심인물 정보 찾기

-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성격과 가치관을 숙고하여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개인 활동 후 모둠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소설에서 찾은 정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말		
	소설에서 찾은 정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행동		

(예시)

	소설에서 찾은 정보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인물의 성격이나 가치관 등)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쩌면 너랑 여기를 같이 쓸 수도 있겠다. 비슷한 처지잖아. 사람들은 우릴 싫어해. 자기들도 우리처럼 될까 봐 무서운 거지.(중략) 그건 우리의 문제일까, 사람들의 문제일까, 아니면 세상의 문제일까?” • “백만 원을 모으고 싶어요.” • “나 배달 알바하면 안 돼?” • “난 오늘도 니중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 • “응달에서 피는 꽃도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낀다. •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위해 애쓴다. 돈 때문에 무엇이든 선택하지 못하고 참아야만 하는 처지를 괴로워한다. • 현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생각한다.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이 없는 학교 건물 뒤 쓰레기장을 아지트 삼아 갑갑해지면 종종 찾아가는다. • 자꾸 마주치는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 와 먹을 것을 주고 재워 주기로 한다. • 몸이 축 늘어져 바들바들 떠는 태주를 보건실에 데려다 준다. • 수많은 나이키 신발 앞에서도 처음 타 보는 비행기의 일등석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에 잠기는 편이다. •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 •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오히려 허전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한다.

활동 2 인물 관계표 그리기

- 주변 인물이 중심인물에게 끼친 영향을 간단하게 서술하는 활동이다.
- 이 활동 역시 개인 활동 후 모둠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도한다.

	정인과의 관계	인물의 말과 행동	정인에게 끼친 영향
헬렐			
할머니			
재아			
태주			
박 코치			
햄버거 힐 사장			

(예시)

	정인과의 관계	인물의 말과 행동	정인에게 끼친 영향
헬렐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악마	- “난 네 운명을 바꿔 줄 수 있다니까.” - “인간으로서 할 수 없고 이를 수 없는 것을 내게 줄게. 인간의 마음, 그걸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까?” - “신은 명령하지만 악마는 시험에 들게 하지. 선택은 인간이 하는 거야.”	정인이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달성되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상상해 보도록 한다.
할머니	정인의 유일한 가족	- “만약에를 백 번 해도 네가 있어야지.” - “할미 아직 괜찮다. 힘 있어. 너 오토바이 안 태워도 즐겁하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어.” - 폐지 수거가 어려워지니 비취가 성치도 않은 리어카를 끌고 자기 구역이 아닌 곳까지 간다.	정인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로, 정인이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재아	같은 반 친구	- 태주가 정인을 놀릴 때 그만하라고 주의를 준다. - 정인에게 아지트를 함께 쓰자고 말한다. - “내일 점심시간에 벌일 없으면 올래? 모종 심을까 하는데.”	정인이 스스로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태주	같은 반 친구	- “현정인, 너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는 거 잊지 마라?” - 정인이 구질구질해서 싫다고 한다.	정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다.
박 코치	정인이 들르는 폐지 수거 업체 사장님	- 정인이 폐지를 가져가면 금액을 올려서 채워 주는 한편 폐지 줍는 일을 그만하라고 한다. -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챙겨 준다. - 고물상에 천천히 발길을 끊어 보라는 얘기와 함께 수학 문제집을 건네 준다. -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갔을 때 수속을 도와준다.	정인 가족에게 도움을 주며, 정인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뒤에서 응원한다.
햄버거 힐 사장	정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식당 주인	- 유통기한이 지난 패티와 빵을 태그 갈아 더 쓰자고 해 놓고 단속이 나오자 정인이 한 일이라며 덮어씌운다. - 계약서에 쓴 알바 시간보다 더 일해도 수당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	정인을 곤경에 빠트린다.

활동 3 인물의 선택 탐구하기

- 인물에게 있어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의미를 통해 소설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 이 활동 역시 개인 활동 후 모둠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설 전체에서 '정인'이 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인'의 삶의 태도는?
-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예시)

- 소설 전체에서 '정인'이 한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헬렐은 화려한 홀에서 문을 열기만 하면 원하는 게 무엇이든 있다며 정인에게 뭐든 말해 보라고 한다. 그러나 정인은 손쉽게 소망이 충족되는 걸 포기하고 현실로 돌아가 자신의 삶을 살기로 한다.
-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정인'의 삶의 태도는?
정인이 문 열기를 거부한 까닭은 상상 속 세상에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으로만 꾸며진 세상은 진짜가 아니므로 삶으로 돌아가 수많은 가능성 속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자기 삶을 사랑하는 태도와 용기를 알 수 있다.
-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정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나йки 운동화, 일등석 비행기, 훌륭한 식사가 주어졌을 때도 정인은 허전함과 쓸쓸함을 느꼈다. 따라서 헬렐이 원하는 대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을 열었다 해도 자기 삶을 스스로 꾸러가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 10차시 | 평가하기

위에서 제시한 활동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지막 차시에는 구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사전 질문을 공지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두 가지 질문에 각각 1분 내외로 답변하도록 한다. 답변의 근거는 반드시 소설 안에서 찾도록 한다.

질문 목록

- 정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성격과 가치관을 말해 보자.
- 정인의 주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 그가 정인에게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 정인이 한 선택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자.
- 정인이 소설의 내용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상상해 말해 보자.

| 11차시 | 추가 활동

활동 1 소설 속 문장으로 답장 쓰기

- 소설 속 문장을 활용하여 친구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활동이다.
- 교사는 읽기 전 활동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고민 사연을 무작위로 배분한 뒤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감과 함께 진지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소설 속 문장들을 다시 음미하고 삶과 연결하여 성찰할 수 있다.

받은 사람 []

- 고민에 대한 답변
- 소설 속 한 문장
- 문장을 고른 이유

받은 사람 [클로버]

• **고민에 대한 답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서 지쳐 계시는군요. 마음은 답답하고요.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요. 왜 수행평가는 몰려 있는 걸까요? 그래도 우리 자책은 하지 않기로 해요.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한다는 건 그만큼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요. 생각은 그만! 마키롱님께 지금 필요한 건 우선 지친 몸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가끔은 시간을 내서 걸어 보세요. 그런 다음 조금 생기를 찾았다면 다시 한 번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세요. 고민에 빠지기 보다는 눈앞에 있는 한 가지부터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 볼게요. ^^

• **소설 속 한 문장**

“해 볼게요. 해 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그때 생각할게요.” (228쪽)

• **문장을 고른 이유**

정인이 헬렐의 유혹을 거부하고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택하는 장면에서 한 말이다. 우선 부딪혀 보겠다는 말이 감동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나도 해야 할 일들로부터, 지겨운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 그럴 때일수록 생각을 많이 하기 보다는 우선 해 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다. 사연을 쓴 친구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엮어 읽기

『단명소녀 투쟁기』, 현호정 장편소설 (사계절 2021)

『클로버』를 흥미롭게 읽었다면 환상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한 편 더 읽어 보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단명할 운명을 타고난 소녀의 이야기다. 운명을 점친 이는 북두로, 열아홉 살 수정에게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단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정은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삶을 이어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한편 수정과는 반대로 죽기 위한 여정 속에 이안이 있다. 두 사람은 이계(異界)의 존재들을 만나면서 살아남기 위한 모험을 지속한다. 가혹한 세상을 스스로 부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독자는 쾌감을 느끼는 동시에 사랑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설화적 모티프를 차용하면서도 게임 스토리 같은 전개가 특징으로, 속도감 있게 읽힌다. 환상 문학 속의 세계는 현실의 은유다. 책을 읽고 소설 속 세계를 현실에 비추어 본 뒤, 각 요소들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함께 읽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본다면 더욱 풍성한 독서가 될 것이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미에 장편소설 (팩토리나인 2020)

꿈을 장치로 한 환상 문학은 고전문학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있어 왔다. 몇 해 전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화제가 되었다. 이 역시 꿈속 세상을 배경으로 현실에서 벗어난 세계를 그린다. 잠들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은 바로 꿈을 판매하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이곳에서는 꿈 제작자들이 꿈을 만들기도 하고, 매년 최고의 꿈을 선정하는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 꿈 손님들은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 도시를 방문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지만, 페니는 손꼽아 원하던 달러구트 꿈 백화점에 취직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를 겪는 모습을 지켜본다. 현실에서 풀리지 않던 실마리가 꿈이라는 환상을 통과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환상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성찰하고 다시 삶을 계속하게 된다는 점에서 『클로버』와 유사성이 있다. 환상 문학에 흥미를 가지게 된 학생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위로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한다.